

호시노재심 뉴스 203 후 2014년 4월 15일 발행



호시노(星野)씨가 그린 이번 달의 그림

『슬픔을 극복하고, 마음에 희망의 배를 띄운다』



3·11 반원전 후쿠시마(福島) 행동 `14 고리야마(郡山) 역앞에서 「전원전 폐화로!」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6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의 전인민적 비약으로 6.8 국철집회 6.29 호시노 전국집회에 대결집을



3월 2일 동북춘계투쟁집회

3월 27일 시즈오카(静岡) 지방재판소 무라야마 히로아키(村山 浩昭) 재판장은 하카마다 이와오(袴田 巖) 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 하카마다(袴田) 씨는 48년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승리입니다. 증거를 날조까지 해가며 「사형을」을 강행하려고 했던 국가권력에 대해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습니다. 증거개시가 재심 개시 결정을 개척한 것입니다. 이 승리에 이어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 씨의 해방을 향해 전진하자.

세계 대공황이 본격적으로 폭팔하는 가운데 「한발의 총성」이 전쟁을 일으키는 무서운 정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安倍) 정권은 대미 대항성을 드러내며 개헌과 전쟁의 정책을 마구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福島)가 버려진 것과 원전 재가동 노동자의 총 비정규직화 소비세 증세 의료나 복지의 해체에 대한 노동자 인민의 참을 수 없는 분노는 체제 내 지도부의 제동을 날려버리고 전국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싸움들을 총 결집해서 아베(安倍) 정권 타도에 끌어 올리는 것이 국철 결전을 축으로한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입니다. 6.8 국철투쟁을 향해 국철 1047명 해고 철회의 십만명 서명을 완수하자.

이 2014년이 승부의 해입니다. 6.8 국철 투쟁집회 6.29 호시노 전국집회 8.17 개헌과 전쟁에 반대하며 해고를 용서하지 않는 대집회로 비약하자. 호시노씨를 되찾는 전망을 모색하자

춘투집회에서 연달아 결의안이 나왔다

호시노씨는 오키나와(沖縄) 투쟁을 싸우고 무기징역에 굴복하지 않고 토쿠시마(徳島) 형무소에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호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무죄인 호시노씨를 39년간이나 형무소에 가두고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분노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사람답게 살 희망을 빼앗기고 있는 모든 노동자 특히 청년노동자의 분노와 하나인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호시노씨 해방운동을 스스로의 과제로서 일어서는 정세가 왔습니다. 국철투쟁 원전 반대투쟁 개헌.전쟁 저지투쟁과 하나가 되어 싸워 100만명의 인민과 연결되는 싸움으로 발전시키면 반드시 호시노씨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2014년 호시노씨를 되찾는 승부를 걸자

호시노투쟁은 노동자가 계급적 단결을 쟁취해 쫓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싸움입니다. 전국노조

교류센터는 두번에 걸친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데모나 2.9 시부야 (渋谷) 대 데모를 싸웠습니다. 1월 19일 국철 미토 (水戸) 동력차 노동조합의 제 32 회 정기대회 3월 2일 토우호쿠 (東北) 춘투집회 3월 9일 이바라키 (茨城) 춘투집회에서 연이어 「호시노씨를 되찾자」 라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검찰관은 사진 원본을 내나라

2014 년 싸움의 기축은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무죄의 증거를 내나라」 라는 압도적인 정의로 국가권력과 격돌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시노 재심투쟁은 증거개시를 둘러싼 중대한 공방과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12 월 25 일 제 3 회 「삼자협약」 에 있어서 재심변호단은 토우쿄우 (東京) 고등재판소에 원본의 개시를 권고 시키는 결정적인 전진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관은 「원본의 스캐닝에 실패했다」라 칭하며 아직도 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시노씨는 기동대원을 「구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경찰관 이치로우마루 (一郎丸) 가 토우쿄우 (東京) 백화점 본점 앞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러나 토우쿄우 (東京) 고등재판소 제 11 형사부는 「선명하지는 않지만 손상을 입은 듯한 흔적이 있다」 라며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변호단은 최신기술로 원본을 해석해 호시노씨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진 원본을 어디까지나 숨기려고 하는 토우쿄우 (東京) 고등검찰청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을 전국에서 전개해 찬동과 서명을 확대하자. 이 힘으로 증거개시를 쟁취해 호시노씨의 재심무죄.해방을 실현하자.

4.12 전국토론회부터 6.8 국철집회 6.29 호시노 전국집회 그리고 8.17 전인민집회의 성공을 쟁취하자

면회.편지 국가배상

호시노 아키코 (星野 暁子) 씨가 분노의 진술을 하고 결심

6 월 20 일 형무소 내외의 분단을 저지하는 판결을 쟁취하자

3 월 7 일 면회.편지먹칠 국가배상 소송의 제 10 회 재판이 토우쿄우 (東京) 지방재판소 민사 (타니구치 유타카 (谷口 豊)재판장) 제 38 부 에서 열려 결심되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니시무라 쇼우지 (西村 正治)변호사가 57 페이지에 이르는 최종「준비서면」을 제출해 원고인 호시노 아키코 (星野 暁子) 씨와 카나야마 카즈미 (金山 克巳) 씨가 결심을 위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키코씨가 분노를 담은 「진술서」를 낭독했습니다.

면회와 자유로운 편지의 왕래는 부부의 유대

「제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의 대응이 30 분이란 짧은 면회와 편지 왕래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우리들 부부생활의 뿌리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침해가 일본의 형무소 전체에 미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타니구치 유타카 (谷口 豊)재판장! 부부인데도 손조차 만질수 없는 괴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부부에게 한번 한번의 면회와 자유로운 편지의 왕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상해 보세요」

아키코씨가 강한 감정을 담아 읽는 것을 듣고 방청석에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아키코씨의 면회를 거부하고 편지를 먹칠한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에 의한 면회거부가 시작된 것은 2010 년 5 월 입니다. 일곱명의 친구가 계속해서 면회를 거절당해 9 월에는 아키코씨의 면회까지 거절당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키코씨가 보낸 편지의 먹칠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탄핵해서 2011 년 11 월에 제소해 이년반 사이에 열번의 재판을 싸워왔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의 싸움과 외부 싸움의 분단을 막고 교류와 단결을 쟁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2006 년 부터 시작된 총계 94 명에 이르는 친구면회는 호시노투쟁의 전진을 개척하는 커다란 힘이 되고있습니다. 호시노씨와 실제로 면회해 그 숨을 몸소 느끼는 것은 형무소의 벽을 사실상 쳐부수는 듯한 단결과 연대를 만든 것입니다.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는 이 전진에 공포를 느껴 10 년 5 월 이후 면회거부와 편지에 대한 먹칠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면회.편지 국가배상소송을 싸움과 함께 12년 2.5 와 13년 9.8에는 호시노 전국재심연락회의와 전국노조 교류센터가 하나가되어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 포위데모에 궤기해 「이 힘으로 호시노씨를 되찾을 수 있다」 라는 확신을 만들어 냈습니다. 14 년의 투쟁으로 결정적인 승부를 걸어 호시노씨을 되찾는 전망을 개척하자

호시노씨의 3.11 어필 (발췌)

피폭을 강요하는 1%에게 책임을 지게하자

총 방출량의 20% 히로시마 (広島) 형 원폭 수십발분의 방사능을 땅에 뿌리고 지금도 소형 원폭수준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해 원전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후쿠시마 (福島) 를 중심으로 피폭을 강요해 이미 의혹을 포함해 아동 77 명의 갑상선암이 발병 자연도 일도 생활도 인생 자체를 빼앗고 있습니다.

지민토우 (自民党) 정부와 전력.원자력산업을 비롯해 「원전은 안전」이란 거짓말로 이권.돈벌이를 위해 원전을 추진한 1%의 자본가.권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은 그 책임으로 부터 도망쳐 재가동.수출에 의해 1%의 이권.돈벌이를 위해 후쿠시마를 잇고 잘못을 반복해 또다시 모든 노동자인민의 모든것.미래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등 인류자체에 대한 도전이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베 (安倍) 를 선두로 과거 노동자 인민에게 치안유지법등의 대탄압을 가해 침략전쟁.태평양전쟁에서 아시아 삼천만명 미일등의 인민 수백만명을 학살해놓고 그 책임에 대해 돌변해 찬미까지 하며 또다시 군사독재국가 아래에서 전쟁의 길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핵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인민의 분노가 땅에 넘친다.

이제는 이것들의 공격이 전세계 공통적으로 노동자 인민에게 덮치는 가운데 이 공통의 적에게 노동자 인민의 분노가 땅에 넘쳐 전세계에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 분노와 쫓겨나기를 스탈린주의나 체제내부의 제동이나 「우물쭈물」이나 「체념」을 타파해 해방시켜 노동자 인민의 마음으로부터 자기해방적 쫓겨나기를 쟁취하는 것은 도지사 선거에서 스즈키 (鈴木) 씨가 호소해 국철 치바 (千葉) 미토 (水戸) 동력차 노동조합 국철 노동조합 코오리야마 (郡山) 지부를 비롯한 「생산을 깊어지고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노동자.인민이 단결해서 일어서면 이것들의 공격을 쳐부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는 투쟁 그자체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공격을 모두 되찾는 것으로 박살내 승리하는 투쟁으로서 「무죄인데 무기징역형」을 모든 증거개시 재심.해방의 싸움으로 뒤엎는 호시노투쟁에 함께 승리합시다.

토쿠시마 (徳島) 면회일기

코오리야마 (郡山) 에서 옛친구와의 만남을 기뻐하는 후미아키

호시노 아키코 (星野 暁子)



꽃 무늬의 치마 저고리를 입어

3 월 12 일 면회를 향하던 차안에서 벚꽃이 한송이만 피어있는 것이 보였다. 이날의 면회는 전날의 3.11 후쿠시마(福島)현 코오리야마(郡山)집회의 보고가 메인 이었다. 「원전이 들어온 운명의 전부를 받아드린다」고 발언한 고등학생을 비롯해 후쿠시마 (福島) 부터 일본을 바꿔나가자 라는 감동적인 집회를 생취한 것을 전했다. 100 명이 모인 집회후의 데모에서 연도에 있던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부응한 상황을 전했다니 후미아키는 「그렇구나. 자신은 데모에 참가하지 못해도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며 기쁘듯이 말했다.

모의기획인 코오리야마 (郡山) 역앞에서는 귀중한 만남이 있었다. 전 원전 노동자로 지금 제염하는 일을 하고있는 H씨를 만난 것이다. 고등학생때 후미아키와 캐치볼을 한적이 있다고 한다. H씨는 「옛날에는 생활하기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지금은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투쟁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해준 것을 전했다. 후미아키는 이름을 기억해 내지는 못했지만 「운동이 퍼지는가운데 그런 사람과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중학시절의 N군 한테서도 편지를 받았어. 신경써준 O씨 덕분이야」라고 말했다.

알기 쉬어진 어필

3 월 8 일 부인민주클럽의 집회에서 후미아키의 17 일간의 「옥중에서의 선거전」을 전했다니 모두 감동적으로 받아준 것을 전했다. 2 월 면회에서 나 한사람을 상대로 이틀동안 마구 선동하듯이 말한 후미아키를 어떻게 받아드리면 좋을까. 후미아키가 투쟁의 주체로서 천만의 토우쿄 (東京) 도민을 상대하는 자기변혁을 이룬것.이루려고 한것을 느꼈고 후미아키의 모든 노동자 인민에게 호소하고자 한 희구 빼앗기고 있는 까닭의 격렬함을 느꼈다는 것을 전했다. 실제로 후미아키의 어필은 선거전 이후 알기 쉬워졌다. 「살아갈수 없는 현상황에 대해 노동조합을 만들어투쟁하는 것. 뿌리부터의 변혁을 호소하는 선거전에서의

지평이 모두의 지평이 되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후미아키도 나도 말했다. 13 일 이날은 공교롭게도 비가 왔지만 꽃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당한 것에 화가 난 마리씨가 「그렇다면 이걸 입고 가」라며 꽃모양의 치마저고리를 주셨기에 분홍색 차마저고리를 입고 면회했다. 후미아키도 「좋네 어울려」라고 기뻐했다.

이날은 집에 가져갔던 그림을 보며 면회를 했다. 「카즈라기 후미코 (桂木 文子) 씨가 아로마숍에서 산 동남아시아 어린이의 그림이야. 웃는 얼굴이 튀어나오는 듯한 사진이었어. 추었던 10 일에 재채기를 하면서 그렸어 내 그림은 살갓이 희고 투명감이 넘치게 그리는데 썩탄한 살갓색을 그리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후미아키. 「표정이 좋아」라고 내가 말했다.

14 일. 삼일째의 면회.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했다. 체온은 몇번인가 재서 평균 35.5 도 일자와 시간도 넣은 데이터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한랭두드러기가 심해지지 않도록 올해는 될 수 있는 한 이불에 들어가서 몸이 차거워지지 않도록 한 것이 좋았던 것 같아. 손끝을 따듯하게 하는 것도 좋아」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투병중인 Y 짱에 대한 조언을 이날 이야기 해줬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근원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소중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떠한 형태로 충족되냐 하면 누구나가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자신도 충족된다. 사람을 위해 사는 것으로 채워진다. 주변의 모두를 위해 희생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좋은점이 발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의 평가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이 해왔던 것을 정확히 평가해서 그중에서 극복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Y 짱의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충실했던 삼일간의 면회였다.